

“주먹밥 나눔, 빵으로 이어간다”…오월광주 나눔세일

광주시-대한제국협회 업무협약
5·18 45주년 기념 감사 마음 담아
17~18일 제과점 49곳 10% 할인
‘나눔·연대’ 오월정신 일상속 실천

광주광역시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월광주 나눔세일’을 펼친다.

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주먹밥 나눔으로 대중세상을 실현했던 ‘5·18 정신’을 이어가고자 광주, 전남·북 제과점 49곳이 나눔세일에 동참, 5월 17~18일 이틀간 빵 10% 할인에 나선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대한제국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5 오월광주 나눔세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광주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관고 대한제국협회 광주전남지회장과 ‘2025 오월광주 나눔세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관고 대한제국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제과점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월광주 나눔세일’은 오는 17~18일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 일

부지역 49개 제과점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제과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나눔세일에는 공전제과, 베비에르, 브레드세븐 등 지역의 유명 제과점에

서부터 지역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골목빵집까지 다수가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 5·18의 의미를 더했다.

광주광역시는 구매 촉진을 위해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관고 대한제국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어릴 적 아픔의 기억이었던 5·18이 이제는 아픔을 추모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장으로 바뀐 것 같다”며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제과인들이 오월 정신에 걸맞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민주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5·18 45주년을 더욱 특별하다. 광주는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나눔 세일로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눴던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더욱 커지고, 오월을 경험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는 역사의 교훈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5·18 45주년… 광주 곳곳 전시·공연·축제 ‘풍성’

시립발레단, 16일 ‘디바인’ 공연
ACC, 오월 배경 관객참여형 연극
5·18기록관 ‘소년이 온다’ 특별전

오월 광주가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방식의 예술로 승화된다.

광주광역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오월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펼쳐진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립발레단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17일 오후 3시 정기공연 ‘DIVINE(디바인)’을 선보인다.

5·18민주화운동의 희생과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으로, 치유와 위로 그리고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컨템포러리 발레다. 2023년 ‘무용예술상 작품상’과 ‘한국발레협회상 올해의 작품상’ 수상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5~18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관객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무대에 올린다. 단순히 관객이 연극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시민군의 입장에서 직접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10월19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소년이 온다’ 특별전을 연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과 정신을 문학과 기록으로 재조명한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오는 25일까지 특별기획전 ‘단색화: 무한과 유한’전을 연다.

한국의 단색화는 작업 과정의 신체성을 중시하고, 작품에 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특별전 ‘소년이 온다’.

광주광역시 제공

이번 전시에는 한국 단색화의 대표 작가 9인(이우환·곽인식·박서보·하종현·정영렬·허황·최명영·윤형근·정상화)의 회화 작품 48점과 아카이브 자료 30여점을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축제, 공연, 스포츠, 전시,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합 브랜드한 ‘G-페스타 광주’를 확대, 운영한다.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17~18일) △제60회 광주 시민의 날(24일) △

무등울림축제(24일) △광주국제인문위크(13~15일) △무등산 인문축제(31일~6월1일) △2025 광주식품대전(29일~6월1일) △2025 광주 티&카페 쇼(29일~6월1일) △2025 광주주류페스타(29일~6월1일) 등 5월을 풍성하게 채워줄 축제가 이어진다.

각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광주관광 누리집 또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아 기자

외국인 3인의 오월 회고록… ‘증인: 국경을 넘어’

전일빌딩서 내년 3월까지 특별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5·18의 진실을 조망하는 특별전 ‘증인: 국경을 넘어(Witness: Beyond Borders)’를 지난 2일 전일빌딩245 9층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머물렀던 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 고(故) 아놀드 피터슨, 제니퍼 헨들리 등 3명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의 아픔과 민주화의 여정을 재조명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남아 시민을 보호하고 진실을 목격했으며, 이후 자신들의 경험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썼다.

전시는 푸른 눈의 이웃, 10일간의 일지, 오월 이후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한 장면들을 텍스트와 사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재현한다. 세 번째 구역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들이 국내외에서 펼친 활동과 자료들을 전시한다.

미국 평화봉사단원 출신 데이비드 돌린저(한국명 임대운)는 헬기 사격을 목격하고, 도청에서 무전 감청과 외신 기자회견

첫 번째 구역은 세외국인의 삶과 활동을 소개하고, 두 번째 구역에서는 10일 간의 광주항쟁 기간에 그들이 마주

통역 등을 수행했다. 돌린저씨는 최근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 아놀드 피터슨 박사는 광주에 남아 계엄군의 무력진압 장면을 기록했으며, 회고록 ‘5·18광주사태’를 통해 헬기 사격과 미군 폭격계획 내용을 담아 1995년 서울지점의 참고인 조사로 이어졌다.

5·18 당시 10살이었던 헨들리 박사의 딸 제니퍼는 집 다락방에 시민을 숨겨준 경험을 바탕으로 ‘제니의 다락방’을 출간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전시는 외국인들이 목격한 광주의 진실을 통해 5·18의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광주가 정치적으로는 고립됐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시, 세계인권도시포럼 15일 개막

DJ센터서 사흘간 600여명 참가
특별·네트워크회의 등 27개 행사

광주광역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50번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공동주최한다.

올해부터는 5·18기념주간에 개최해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올해 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다. 세계적 인권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인권 도시들과 활동가들이 한자



리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5일 오후 2시에 개막하며 개·폐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최 기조연설은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가 맡는다.

개회식 직후 ‘평화를 향한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열린다. 신형식(사)국민주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최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대훈(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의 ‘한국사회의 평화문제 쟁점과 대안’, 파르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인권활동가의 ‘방글라데시 평화운동, 과거와 현재’ 등의 공개 제안·토론이 진행된다.

정상아 기자